

‘望黃山’詩에 나타난 시인별 형상화 연구

沈 禹 英*

◁ 目 次 ▷

I. 序言	IV. 기타장소에서의 “望黃山”詩
II. 李白의 〈送溫處士歸黃山白鵝峰舊居〉	V. 새벽의 “望黃山”詩
III. 黃山樓에서의 “望黃山”詩	VI. 結論

I. 序言

黃山은 중국 최고의 명산으로 安徽省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길이가 약 40km 동서로 폭이 약 30km로서 총 면적은 대략 1200km²이다. 이 중 약 154km²가 황산의 精華로 알려져 있다.

황산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표층이 검어져 일찍부터 “黟山”이라는 명칭을 가졌었다. 그러나 軒轅 黃帝가 이곳에서 煉丹修身하여 得道昇天했다는 《周書異記》에 기록된 전설에 근거하여, 唐나라 天寶6년(747)에 玄宗이 改名을 명하여 현재의 “黃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明代의 유명한 여행가인 徐霞客은 황산의 기상천외한 수많은 산봉우리와 奇松, 怪石, 雲海, 溫泉 등의 “四絕”을 보고 「이 세상에는 徽州(지금의 安徽省)의 黃山 만한 산이 없다. 황산에 오르고 나면 천하에 산다운 산이 없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薄海內外, 無如徽之黃山. 登黃山, 天下無山, 觀止矣!)」라고 하였고, 「오악에 다녀오면 다른 산을 보지 않고, 황산에 다녀오면 오악을 보지 않는다.(五嶽歸來不看山, 黃山歸來不看嶽.)」라는 新造語까지 등장하였으니, 황산은 가히 “天下第一奇山”에다 “人間仙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

* 祥明大學校 中文科 教授

1) 1985년 中國旅遊報社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10대 풍경명승지 중 4위에 뽑혔으며, 또한 산으로는 유일하게 선택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UNESCO의 승인을 받아 <世界遺産

황산에 대한 기록은 “三天子都山” 혹은 “三天子鄆山”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山海經》에 보이고²⁾ 《水經注》에도 “三天子都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송대에 이르러 黃山圖志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청대까지 상당수의 도지가 간행되었으나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몇 편 되지 않는다.³⁾

현재 남아 전하는 황산도지 중 가장 체계적이고 정선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淸 閔麟嗣가 康熙18년(1679)에 편찬한 《黃山志定本》이다. 여기에는 〈賦詩志〉가 등재되어 있는데 황산과 관련된 古今體詩 896수가 수록되어 있다.⁴⁾

본 논문은 중국의 명산과 관련된 시를 대상으로 계획 중인 일련의 명산 산수논문 시리즈 중 첫 번째 것으로, 멀리서 본 황산의 모습이 시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를 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黃山志定本》에 수록되어 있는 896수의 古今體詩 중 제목에 ‘望黃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시만을 대상으로, 시인들은 황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황산을 대상으로 쓴 시 중 가장 유명하고, 황산을 만 천하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채택한 底本에서도 첫 수로 등장하는 唐 李白의 〈送溫處士歸黃山白鵝峰舊居〉를 서두에 두어 본 논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키고자 한다.

II. 李白의 〈送溫處士歸黃山白鵝峰舊居〉

黃山四千仞, 황산 사천 길에
三十二蓮峰, 서른 두 개의 蓮峰
丹崖夾石柱, 붉은 벼랑 끼고 돌기둥 솟아

名錄》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

- 2) 《海內南經》: 「三天子鄆山在閩西北, 一曰在海中.」, 《海內東經》: 「浙江出三天子都, 在其東, 在閩西北, 入海, 餘暨南, 廬江出三天子都, 入江, 彭澤西, 一曰天子鄆.」, 《海內經》: 「南海之內, ……有山名三天子之都.」
- 3) 송대에 黃山圖志가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나(최소한 5종 이상이 망실되었음), 이 중 明末淸初의 方望子(호는 香砂道人)가 虞山의 한 장서가로부터 수집하였다는 《黃山圖經》만이 유일하게 전한다. 명대에도 최소한 5종 이상의 轉刻本이 나왔는데, 이 중 萬曆47년(1619)에 潘之恒이 轉刻한 《黃海》가 유일하게 전한다. 그리고 청대의 도지로는 모두 6종이 전하며, 최근의 것으로는 民國 연간에 陳少峰이 纂輯하고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黃山指南》이 전한다.(淸 閔麟嗣編 《黃山志定本》(合肥, 黃山書社, 1990), 1-3쪽 참조)
- 4) 황산과 관련된 시가는 현재 약 이만 여수가 있다고 한다.(陶方平 著 《黃山旅遊指要》(合肥, 黃山書社, 1996), 13쪽 참조)

菌苔金芙蓉.	연꽃봉오리 금빛 연꽃 모양
伊昔昇絕頂.	이주 옛날 산꼭대기에 올라
下窺天目松.	天目山 소나무 내려다보며
仙人鍊玉處.	선인이 연단 하던 그곳에는
羽化留餘蹤.	하늘에 오르면서 자취를 남겼구나
亦聞溫伯雪.	溫伯雪 얘기는 들긴 했지만
獨往今相逢.	홀로 찾아가 오늘에야 만났도다
採秀辭五岳.	빼어난 이곳 찾아 五嶽조차 버리고
攀巖歷萬重.	겹겹이 펼쳐진 산봉우리에 오르다
歸休白鶴嶺.	이제야 白鶴嶺으로 돌아가 쉬며
渴飲丹砂井.	丹砂井 물로 목을 축일 것이니
風吹我時來.	仙樂이 울릴 때 때때로 찾아가면
雲車爾當整.	그대는 웅당 구름수레 거두어
去去陵陽東.	陵陽山 동편으로 가고 또 가서
行行芳桂叢.	계수나무 숲에서 다니고 또 다니세
迴谿十六度.	돌아드는 시내는 셀 수 없이 많고
碧嶂盡晴空.	푸른 봉우리 맑은 하늘에 닿아 있으니
他日還相訪.	다음에 다시 그댈 찾으려면
乘橋躡彩虹.	天橋에 올라 무지개 밟아 보세

이 시는 《黃山志定本》(賦詩志)의 첫 수⁵⁾로 '황산'시 중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시인이 天寶13년(754) 宣城(지금의 안휘성 宣城縣)에 두 번 재로 놀러 갔을 때 황산의 白鶴嶺⁶⁾ 옛집으로 돌아가는 溫處士⁷⁾를 만나 그를 배웅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景과 情이 잘 어우러져 있는 작품이다. 우선 시 전체를 양분하면, 「黃山

5) 《黃山志定本》에 의하면 唐代 이전의 '黃山'시는 현재 한 편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6) 鍊丹峰의 오른쪽에 있고, 그 아래 서쪽으로는 棋石峰이 이어져 있으며, 東海와 後海를 가르는 分水嶺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는 '白鶴峰'이라고 되어 있으나, 《黃山志定本》에는 백아봉에 대한 서술은 없고 단지 백아령에 대한 것만 있는데, 「당의 은백설이 은거한 곳이며 이백이 시를 지어 그에게 주면서 백아봉이라고 하였다.(唐溫伯雪隱此, 李青蓮有詩贈之, 稱白鶴峰.)」라고 되어 있다.

7) 《莊子》에 등장하는 溫伯雪은 공자가 대단히 존경했던 賢者이다. 이 시에서는 그의 이름을 빌어 溫處士를 찬양하였다.

四千仞」에서 「羽化留餘蹤」까지는 景을 묘사한 것이고, 「亦聞溫伯雪」에서 「乘橋躡彩虹」까지는 情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분한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景의 시구에는 시인의 情感이 교묘하게 섞여있고, 情의 시구에는 황산의 勝景이 두 사람의 교유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첫 두 구에서 황산이 사 천 길, 8) 봉우리가 서른 두 개⁹⁾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통칭되던 숫자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봉우리를 '蓮峰'이라 하여 연꽃에다 비유한 것은 시인의 意象을 그대로 塑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두 구에서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좀더 세밀하게 묘사하였는데, 「丹崖夾石柱」는 상상력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한 시각적 意象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한 것으로, 이중 '丹'은 유구한 세월의 흐름을, '石柱'는 하늘로 치솟았음을 의미하는 形似的 시어이다. 그리고 「菌萐金芙蓉」에서 '菌萐'과 '芙蓉'은 연꽃의 두 가지 모습으로, 봉우리의 모습을 다시 들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네 구(제5~8구)는 天目山¹⁰⁾과 비교하여 황산의 드높음을 표현하였고, 아울러 전설상의 浮丘公이 鍊丹術을 익혔다는 鍊丹峰¹¹⁾의 형상을 우회적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이백이 봉우리를 연꽃 모양으로 묘사하고, 또한 수많은 봉우리 중 연단봉을 특별히 지칭한 것은 불교적이면서 또한 도교적 성향이 농후했던 시인 자신의 사상이 다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景의 묘사에 이어 시인은 온처사에 대한 자신의 情懷를 표출하였는데, 이 속에도 「採秀辭五岳」이라 하여 오악보다 뛰어난 황산의 경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白鵝嶺과 丹沙井을 仙界로 간주하여 仙樂인 '鳳吹'를 끌어왔고 또한 그곳의 교통수단인 '雲車'를 이용하여 온처사와 함께 陵陽山¹²⁾으로 날아가 계수나무 숲에서 노닐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 네 구에서는 다시 말머리를 돌려 황산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迴谿十六度, 碧嶂盡晴空。」 선계인 황산에서 하늘을 날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 후반부는 온처사와의 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시인은 그와의 지속적인 교유를 황산의 白鵝嶺과 丹沙井 그리고 天橋 등 황산승경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

8) 《黃山志》를 보면 황산의 높이가 四千仞으로 되어 있고 諸峰들의 높이가 九百仞 혹은 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백의 시보다 《황산지》가 훨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9) 모든 圖志에는 봉우리가 서른 여섯 개로 되어 있다.

10) 浙江省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山上에 두 개의 호수가 있어 마치 두 눈처럼 보여 이렇게 불렀다. 《郡國志》에 의하면, 높이가 18,000丈 밖에 되지 않아 황산의 麓(산기슭)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11) 《黃山志定本》에 의하면, 높이가 870仞이며 浮丘公이 이곳에서 八卦를 살면서 마침내 丹을 만드니 黃帝가 일곱 알을 먹고 구름 없이도 하늘을 훨훨 날아다녔다고 한다.

12) 지금의 安徽省 宣城縣에 있으며, 寶子明이 이곳에서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기 때문에 景에 대한 묘사가 자연스럽게 가미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를 통해본 황산에 대한 이백의 意境은 바로 仙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의 시작부터 황산이 '四千仞'이라고 강조한 점, 선인과 관련이 있는 鍊丹峰을 특별히 거론한 점, '鳳吹'와 '雲車'같은 선계의 산물을 등장시킨 점, 황산에서 陵陽山으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온 점, 함께 무지개를 밟자고 한 점 등이 모두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Ⅲ. 黃山樓에서의 '望黃山'詩

《黃山志定本》〈賦詩志〉에 황산루에서 황산¹³⁾을 바라보며 지은 시는 모두 네 수가 있다. 먼저 〈郡治樓望黃山〉를 보면 아래와 같다.

郡齋北望春光好,	郡治樓에서 북녘을 바라보면 봄빛이 더없이 좋고
平楚無雲秋望寬.	편편한 숲에 구름 없는 가을 하늘은 넓기만 하다
清氣爽時塵外見,	맑은 기운 상쾌할 때란 속세 밖에서 느낄 수 있고
碧雲飛處靜中看.	푸른 구름 날리는 곳이란 고요함 속에서 보이는 것
爭高千仞山皆讓,	천 길 높이를 서로 다투다 다른 산들이 사양하니
并秀三峰色也寒.	세 봉우리만 더불어 빼어나 山色 또한 싸늘하다
莫怪萬名同岳號,	이름지어 西嶽이라 불렀으나 나무라지 말지어다
暫圖瞻眺近長安.	먼발치 바라보다 잠시 장안에 가까울 수 있으니

이 시는 元和4년(809)에 歙州刺史로 부임한 韋綬¹⁴⁾의 작품으로 앞장에 서술한 이백의 시보다 약 오륙 십 년 뒤에 나온 것이다. 이 시는 郡治樓¹⁵⁾에서 본 황산의 모습을 시인의 정회와 더불어 묘사한 것으로, 謝靈運으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산수 시의 결구형태, 즉 여섯 구의 景에다 두 구의 情을 보태는 결구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작품이다.

13) 여기서 황산이라 함은 황산 전체의 경관을 대상으로 삼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황산 속의 한 개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4) 韋綬는 당나라 사람으로 明經科에 발탁되어 東都幕府가 되었다. 德宗 때는 翰林學士를 지냈으며 관직은 左散騎常侍까지 올랐다. 憲宗 元和4년(809)에 歙州刺史가 되었다.

15) 郡治는 歙州城 즉 新安郡城으로, 지금의 安徽省 歙縣의 縣城을 가리킨다. 군치루는 즉 신안군 성내의 누대를 가리킨다.

우선 景을 묘사한 앞 여섯 구를 보면, 첫 두 구에서 봄의 風光과 가을의 景觀을 차례로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한 순간의 멋진 경치가 아니라 자사로 부임하여 봄가을을 보내고 난 뒤의 종합적 인상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⁶⁾ 여기서 '平楚無雲'의 가을 풍경은 눈에 들어온 것을 여과 없이 표현한 단순한 시각적 意象이다. 제3·4구는 時(시간)와 處(장소)를 이용한 적절한 대구처럼 보이나, 玄言詩적 시어¹⁷⁾로 인해 생명력 있는 산수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5·6구에는 '황산'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千仞'과 '三峰'이 등장하지만, '爭高千仞山皆讓'이라는 표현은 독특한 인상을 준다.

다음으로 情을 표현한 마지막 두 구는 시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낸 것으로, 황산을 西嶽(華山)이라 부르는 자는 바로 자신이며, 그렇게 부르는 이유 또한 장안으로의 복귀를 학수고대하기 때문이라고 넌지시 밝히고 있다. 이처럼 황산에 대한 시인의 감상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의 내용이 진솔하지 못하고 외형적 묘사 또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되는 시로는 宋 徐師의 <登樓望黃山>을 들 수 있다.

黃山樓上望黃山,	황산루에 올라 황산을 바라다 볼 뿐
水石雲霞未得攀,	水石과 雲霞에는 오른 적이 없도다
三十六峰應笑我,	서른 여섯 봉우리 나를 보고 웃는데
紛紛塵事幾時閑,	紛紛한 世上事는 언제나 한가로울까?

이 시는 가식이나 조탁이 전혀 없이 '절로절로' 엮어진 자연스런 느낌을 준다. 황산루에 올라 황산을 바라보지만 水石과 雲霞가 있는 그곳에는 한번도 오른 적이 없다. 서른 여섯 개의 봉우리가 자신을 반기는 듯 미소를 지으니 세상사로부터 언제쯤 벗어나 그곳에 오를 수 있을까?

먼저 '水石'과 '雲霞'가 황산을 대표하는 주요 경물로 등장하는데, 단지 특별한 것은 '水石'이라는 표현이다. '石'에다 굳이 '水'를 붙인 것은, 다습한 기후로 인해 그곳의 기암괴석이 항상 물기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三十六峰'이 시인을 향해 '應笑'한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과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지럽게 들이닥치는 世俗

16) 이것은 시인이 歙州刺史로 있으면서 봄과 가을에 자주 이곳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황산의 정취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단기간을 머물며 온처사와의 우정을 소재로 한 이백의 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17) '清氣', '塵外', '靜中' 등이 현인시에 주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之事로 인해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으니 언제나 희망일 뿐이다.

황산루에서 본 순간적인 황산의 경관을 표현한 것으로는, 唐 于德晦의 〈歙郡有黃山樓，北瞰黃山，山勢中拆若巨門狀，因題一絕〉를 들 수 있다.

黟峰翠色自天流，	黟山の 봉우리 푸른빛은 하늘에서 흘러왔고
直下青冥豁素秋。	내리 뺀친 푸른 하늘은 가을을 활짝 열었다
閑依朱欄頻北望，	朱欄에 한가롭게 기대어 자주 북쪽을 바라보다
只宜名作巨門樓。	단지 이름을 지어야겠기에 巨門樓라 하였다.

이 시의 제목은 마치 詩序처럼 詩作 동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歙郡의 황산루에서 북쪽으로 황산을 바라보다 산세 중에 탁 트인 곳이 있어, 그곳이 마치 거대한 문의 형상 같다고 여겨 이에 절구를 한 수 지어 붙였다고 하였다.

이 시는 앞의 두 구가 景을 묘사하고 뒤의 두 구는 事를 기술하였다.

앞의 두 구에서, 시인은 봉우리가 푸른 것은 하늘로부터 흘러 내려온 것이고, 가을이 활짝 열린 것은 푸른 하늘이 내리 뺀친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직관을 통해 황산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산루를 “巨門樓”라고 한 것은 제2구의 ‘豁’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 ‘豁’자가 바로 이 시의 詩眼이다.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시어는 ‘黟峰’이다. 당나라 天寶6년(747)에 改名을 하기 전까지는 산이 검다고 하여 “黟山”이라고 했지만 시인은 ‘黟’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음에 틀림없다. 즉 ‘黟峰’이 ‘翠色’으로 바뀔 만큼의 획기적인 변화에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靑冥’이 직하할 만큼의 위력이 있어야만 ‘素秋’가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황산루에서 지은 시인데도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는, 唐 任宇의 〈新安郡北百餘里即黃山，西北有峰高出，頗類大華，因目爲小華山。前郡守才客題詠至多，偶登斯樓，因成一絕〉을 들 수 있다.

雪晴雨霽潼關道，	눈 비 그친 뒤 潼關으로 통하는 길에서
仙掌分明幾度逢。	仙掌峰을 선명하게 몇 번인가 마주치며
可料新安郡樓上，	新安郡 누대 위를 헤아릴 수 있었지
黃山深處見三峰。	황산 깊은 곳이라 세 봉우리 보이리라고

이 시의 제목도 마치 詩序처럼 되어 있어, 신안군에서 북쪽으로 백 여 리 떨어진

곳에 황산이 있는데 서북쪽으로 높이 솟은 봉우리가 華山과 매우 흡사하여, 이에 사담들은 小華山이라 여겼고, 이전의 郡守와 才客들은 수없이 題에 붙여 시를 지었는데, 이에 질세라 시인도 짝을 이루어 黃山樓에 올라 絕句를 한 수 지었다고 시작동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황산루에서 본 황산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潼關으로 통하는 길에서 仙掌峰을 만나면서 황산루에 오르면 三峰을 확실히 볼 수 있겠지 하는 예전의 기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지어진 많은 黃山題詩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IV. 기타장소에서의 '望黃山'詩

《黃山志定本》〈賦詩志〉에는 황산루 이외에 花山寺, 松谷庵, 萬山の 西爽軒, 箬嶺, 눈 은 뒤의 祥符寺 등에서 황산을 바라보며 지은 시가 있다. 먼저 花山寺¹⁸⁾에서 황산을 바라본 것으로, 宋 柳月澗의 〈花山寺看黃山〉 제1수를 들 수 있다.

翠色沉沉萬樹春,	푸른빛 짙으니 나무마다 봄기운 가득
幽懷宜共竹爲鄰.	깊은 정회 함께 하니 대나무가 바로 이웃
黃山只在闌干外,	황산이 저만치 난간 밖에 있긴 하나
溪閣雲深認不眞.	溪閣에 구름 깊어 참모습 알 수 없다

이 시는 봄날의 화산사 정경과 그곳에서 바라본 구름 낀 황산의 풍경을 두 구씩 나누어 묘사한 작품이다. 난간 밖에는 황산이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구름으로 둘러싸여 참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 원래의 모습은 알 길이 없고 궁금증만 더해 점점 신비롭게 여겨질 뿐이다.

이 시의 작자인 柳月澗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시인이 화산사에 머문 지가 꽤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장소에서의 '幽懷(그윽한 정회)'란 최소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생기는 것이고, 더욱이 절 주위에 자라고 있는 '竹(대나무)'을 '鄰(이웃)'으로 삼을 정도의 자연과의 交遊는

18) 《黃山志定本》〈建置志〉에는 花山寺를 「在太平南鄉, 一名松山寺,」라고 짚막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賦詩志〉에 宋 程楠의 〈花山寺〉와 宋 柳月澗의 〈花山寺看黃山〉 등의 시가 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인은 황산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며칠 이상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름 낀 황산의 모습을 그린 것은 구름이 늘 황산을 덮고 있거나 아니면 구름 덮인 황산의 모습이 가장 신비스럽고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松谷庵¹⁹⁾에서 바라본 것으로, 元 程仲淸의 〈遊松谷庵望黃山〉을 들 수 있다.

庵前少立望峰頭,	庵前에 몇몇이 서서 봉우리를 바라보니
洞府雲深隱玉樓。	洞府에 구름 깊어 玉樓가 숨었도다
欲挾飛仙遊汗漫,	飛仙과 팔짱 끼고 하늘 날고 싶었으나
偶逢樵叟話網繆。	樵翁 만나 얽힌 얘기에 단짝이 되었다
巖泉晴噴中天雨,	巖泉에서 맑은 물 솟고 中天에서 비 내리니
松谷涼生六月秋。	松谷에는 서늘한 기운 유월이라 가을이로다
兩袖淸風歸路晚,	양 소매에 맑은 바람 가는 길 늦었으니
此身何異在瀛州?	이 몸은 무엇이 달라서 瀛州 ²⁰⁾ 에 머무릅니까?

이 시의 앞 네 구는 송곡암에서 황산을 바라보며 느낀 정회를 표현하였고, 뒤 네 구는 송곡암 현재의 가을 분위기와 또한 자신이 처한 현재의 입장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황산에 대한 묘사를 앞의 시와 대조해 보면, 두 시 모두 황산이 구름에 둘러싸여 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앞의 시는 ‘認不眞’으로 끝을 맺어 전적으로 독자의 상상에만 맡겼지만, 이 시는 선계로 묘사하여 독자를 그곳으로 끌어가려 하였다. ‘洞府’·‘玉樓’·‘飛仙’ 등이 모두 선계와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선계에 대한 환상도 樵翁의 등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바위에서 샘솟고 하늘에서 비 내리는 송곡암의 가을 분위기에다 시간 또한 이미 늦었다는 핑계로 그가 돌아가야 할 생업의 무대인 瀛州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다음은 萬山の 西爽軒에서 바라본 것으로, 明 張達의 〈萬山西爽軒望黃山〉을 들

19) 《黃山志定本》〈建置志〉에는 松谷寺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在疊障峰下, 張真人初居太平南鄉花山寺, 後遷此. 松谷, 其別號也, 遂以名庵, 今爲寺. 庵額羅公汝芳筆: 又「東土雪山」四字, 亦公書, 甚蒼勁. 堂後「禘黃」二字, 湯祭酒黃尹題. 真人塔在殿後. 黃山有兩松谷, 一即此, 一在北獅子峰下, 北峰以借稱耳.」

20) 지금의 河北省 河間縣

수 있다.

奇峰天外競巒岬,	기이한 봉우리들 하늘 밖에 솟았으니
向晚憑欄最好看,	저녁 무렵 난간 기대면 그야말로 멋진 모습
秀出楚吳千里迤,	楚와 吳의 광활한 땅에 더없이 빼어나고
翠摩星月九霄寒,	별과 달의 차가운 하늘에 푸르게 솟았도다
古潭雷迅蒼龍起,	古潭에 천둥 치니 蒼龍이 일어나고
仙洞雲深白鶴還,	仙洞에 구름 깊으니 白鶴이 돌아온다
何日捫蘿登絕頂,	언젠가 넝쿨 잡고 꼭대기에 오르거든
擬從軒后覓金丹,	黃帝의 뒤를 쫓아 金丹을 찾아야지

이 시는 산수시와 유선시가 결합된 형태이다. 즉 앞의 네 구는 멀리서 바라본 황산의 정경을 묘사한 산수시이고, 뒤의 네 구는 황산을 仙界로 간주한 유선시에 해당한다. 내용도 형식도 모두 평범하지만, 특색이라면 제3·4구 그리고 제5·6구 등의 묘사가 스케일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1구의 '天外'라는 어휘와 일맥상통하는 바이기도 하다. 마지막 구에 黃帝를 쫓아 金丹을 찾고자 한 것은 황산에 얽힌 전설을 되새기며 불노장생의 꿈과 선계를 갈망하는 욕구를 동시에 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제2구의 내용에서 밝혔듯이 황산의 정경은 저녁때가 가장 좋는데, 이것은 누구나 익히 느끼고 있는 바이며 특히 도연명이 〈飲酒詩〉 제5수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²¹⁾

다음은 箬嶺²²⁾을 지나며 황산을 바라본 것으로, 明 湯賓尹의 〈度箬嶺望黃山〉을 들 수 있다.

千回鳥道縈青嶂,	수많은 鳥道가 푸른 산을 빙 두르고
一嘯鸞音落彩霞,	난새가 한번 울자 고운 노을 떨어진다
山氣出雲潭作雨,	산 기운에 구름 일자 뒤섞여 비를 뿌리고
泉聲拂樹半成花,	샘 소리에 나무 떨자 반쯤 꽃이 피었구나
到來丘壑酬心賞,	구름에 올라와 즐거운 마음 주고받고
別去風塵上鬢華,	풍진 세상을 떠나 화사한 살쩍 올랐도다

21) 「山氣一夕佳, 飛鳥相與還。」

22) 《黃山志定本》(形勝志)에는 箬嶺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適太平孔道, 延亘三十里, 接壤黃山八里岡, 有 騎龍庵, 爲文帝上人坐脫處。」

三十六峰看咫尺, 서른 여섯 봉우리가 지척에 보이니
欲從軒后問丹砂, 黃帝의 뒤를 쫓아 丹砂를 물어봐야지

이 시는 앞의 네 구가 景이고 뒤의 네 구가 情의 결구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산수 시이다.

경을 묘사한 시구의 예술 기교를 보면, 우선 遠(앞의 두 구)에서 近(뒤의 두 구)으로의 이동이 자연스럽고, ‘千回’의 ‘鳥道’와 ‘一嘯’의 ‘鸞音’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면서도 ‘縈青嶂’과 ‘落彩霞’와 연결되어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雲’에서 ‘雨’로, ‘樹’에서 ‘花’로의 전환은 빈틈없는 결구의 좋은 예이며, 특히 ‘渾’과 ‘半’의 상반적인 언어 구사는 시인의 推敲를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제2, 4구에서는 또한 청각과 시각을 통한 미적 경험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어 시인의 섬세한 감각이 매우 돋보인다.

정을 묘사한 시구를 보면, 자연(丘壑)과 속세(風塵)가 대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전자는 ‘到來’로 후자는 ‘別去’로 하여 내용은 자연으로의 귀의를 중복해서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酬心賞’이나 ‘上鬢華’ 등의 시어는 과거의 도식적인 것을 탈피하여 참신한 맛을 준다. 마지막 시구는 앞의 시의 마지막 시구와 거의 일치하지만, 황산을 바라보면 황제가 생각나고 또한 황제에 생각이 미치면 연단술로 이어져서, 사람이라면 불로장생의 욕망이 생겨 누구나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특별히 표절是非를 가릴 필요는 없다.

다음은 눈 은 뒤 祥符寺²³⁾에서 황산을 바라본 것으로, 明 程瑤의 〈祥符寺雪後望山〉을 들 수 있다.

四顧漫漫雪滿山, 사방에 눈이 내려 온산에 가득한데
披裘策杖出禪關, 잣옷에다 지팡이 짚고 禪關을 나섰다
雲深時見人蹤絕, 구름 깊어 사람 흔적조차 보지 못하고
林暝惟從鶴徑還, 숲 속 어두워 鶴 길 따라 돌아 왔다
萬樹光連峰盡白, 萬樹의 빛 이어져 봉우리가 새하얗고

23) 《黃山志定本》〈形勝志〉에는 祥符寺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在紫石峰下。唐開元天寶間。志滿禪師創始。圖經·舊志失載。大中五年。刺史李敬方感白龍現。建龍堂於湯池之西。天祐二年。刺史陶雅建寺。號湯院。南唐保大二年。敕爲靈泉院。有碑紀事。宋大中祥符元年。敕改今名。元豐甲子。寺僧文太重建。明正統丙寅。僧全寧修之。嘉靖癸未。僧湯谷又修之。萬曆辛巳。李邑侯邦和捐俸又修之。田廣文藝術有紀。寺前群峰傑秀。溫水生香。古木千章。風動谷鳴。清溪激越。有若響答。眞入山之奧區也。或云寺卽軒轅宮。溫泉石壁「軒轅行宮」四字。鑿石猶存。」

六華飛點鬢先斑. 六花의 점 날아서 살쩍 먼저 얼룩졌다
 眼空銀海三千界, 眼孔 속 銀海가 三千世界²⁴⁾라고 하지만
 悵望仙居不可攀. 仙界를 바라보며 못 오르니 오직 슬픔 뿐

이 시는 시인이 황산의 紫石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부사에서 머물다가 눈이 내려 온 산이 하얗게 변했을 때 친히 절을 나서 보고 느꼈던 감각적인 체험을 그대로 시에다 옮겨놓은 것이다.

이 시는 칠언율시인데 제1구에서 침자 ‘漫漫’은 근체시의 울격에는 어긋나지만 ‘雪滿山’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력을 발휘한다. 頡聯인 「雲深時見人蹤絕, 林暝惟從鶴徑還」은 대설이 내려 인적이 끊긴 산길을 직접 보고 견고 한 경험을 묘사한 것인데, 이 중 ‘鶴徑’의 등장은 아주 색다르다. 《黃山志定本》〈山產志〉를 보면 「학은 한번에 천리를 날아서 예전에는 仙禽이라 하였다. 산중에 있으나 자주 보이지 않는다. (鶴, 一起千里, 古謂之仙禽, 山中有之, 不數見).」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학은 선계의 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산중에 ‘鶴徑’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인은 상부사 밖으로 나 있는 눈길을, 선계의 鶴을 매개로 하여 人境에서 仙境으로 통하는 길로 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頸聯에서는 다시 눈 덮인 산 속의 세계를 주위의 나무에서 멀리 봉우리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하얗게 묘사하여 尾聯에 언급한 ‘仙居’와의 연결을 시도하지만, 그곳에 오를 수 없는 현실에 마냥 슬프기만 하다.

V. 새벽의 ‘望黃山’詩

《黃山志定本》〈賦詩志〉에는 새벽에 바라본 황산의 모습을 묘사한 시가 한 수 있다.²⁵⁾ 宋 鄭震의 〈曉看黃山〉이 바로 그것이다.

24) ‘三千界’는 ‘三千世界’의 준말이다. 즉 小千·中千·大千세계를 말한다. 須彌山을 중심으로 해와 달과 四天下를 한 세계라 일컫고, 이것을 천 배한 것을 소천세계, 소천세계를 다시 천 배한 것을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다시 천 배한 것을 대천세계라 한다.

25) 《黃山志定本》〈賦詩志〉에는 〈曉發潛口望黃山〉이라는 시가 있으나, 이 시는 사건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황산에 대한 경물 묘사는 고작 네 구에 불과하다. (총 열 여섯 구) 내용이나 예술 기교 또한 특별한 것이 없어 이 장에서 제외하였다.

奇峰三十六,	奇峰 서른 여섯 개는
仙子結青鬢.	선녀의 푸른 쪽진 머리
日際雲頭樹.	태양 아래 구름 끝 나무
人間天上山.	인간세계 위 하늘가 산
九州人共仰.	九州의 사람들이 우러르고
千載鶴來還.	千年的 학이 돌아오는 곳
遙見樵蘇者.	멀리 산골 나무꾼이 보이는데
披雲度石關.	구름 헤치고 石關을 넘어간다

이 시는 새벽에 奇峰을 바라보며 지은 작품이다. 앞의 네 구가 봉우리의 형상과 위치를 묘사한 것이라면, 뒤의 네 구는 황산에 대한 정회와 멀리 보이는 나무꾼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시인이 산봉우리를 ‘仙子’의 ‘青鬢’으로 비유하고, 그곳의 산과 나무를 ‘日際雲頭’와 ‘人間天上’에 위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황산을 인간세계가 아닌 선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천하의 사람들이 이 산을 우러러보고 천 년을 사는 학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멀리 어렵곳이 산골의 나무꾼이 보이는데, 구름을 헤치고 바위 사이를 넘어가는 모습이 마치 선계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VI. 結論

본 논문은 《黃山志定本》〈賦詩志〉에 기록되어 있는 고급체시 896수 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李白의 〈送溫處士歸黃山白鵝峰舊居〉와 제목에 ‘望黃山’이 들어가 있는 10수를 대상으로, 황산이라는 형상을 바라보며 느낀 감각적 체험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唐 李白의 〈送溫處士歸黃山白鵝峰舊居〉를 보면, 총 22구 중 景이 8구 情이 14구로 되어 있으나, 景에는 情이 情에는 景이 잘 어우러져 있다. 주요 묘사대상은 봉우리인데, 이것을 ‘蓮峰’이라 표현하였고 나아가 ‘菌壼(연꽃 봉오리)’과 ‘芙蓉(활짝 핀 연꽃)’으로 나누어 비유하였다. 또한 황산에 대한 이백의 意境은 바로 仙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黃山樓에서 황산을 바라보며 지은 작품으로 모두 4수가 있다. 이 중 韋綬의 〈郡治樓望黃山〉를 보면, 여섯 구의 景에다 두 구의 情을 보탠 전형적인 산수시의 결구형태를 지니고 있다. 주요 묘사대상은 황산과 三峰으로, 황산의 봄가를 특색을 '春光好'와 '秋望寬'으로 묘사하였으며, 코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清氣'와 '碧雲'은 현언시적 어휘인 '塵外'와 '靜中'과 결합하여 생명력을 잃었다. 「爭高千仞山皆讓」의 표현은 독특하나, 삼봉의 山色이 차갑게(寒) 느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황산을 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던지시 밝힌 것은 산수에 대한 미적 경험이 진실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다. 宋 徐師의 〈登樓望黃山〉은 간단한 칠언절구로, 주요 묘사대상은 황산과 三十六峰이다. 시인은 멀리서 바라보는 황산의 대표 경물로 '水石'과 '雲霞'를 내세웠는데, '水石'이라고 한 것은 그곳의 기암괴석이 단순한 기후로 인해 항상 물기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三十六峰'이 시인을 향해 '應笑'한다고 느끼는 것은 시인의 희망이 언제나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唐 于德晦의 〈歙郡有黃山樓, 北瞰黃山, 山勢中拆若巨門狀, 因題一絕〉은 순간적으로 바라본 황산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시 역시 칠언절구로, 앞 두 구가 경을 묘사하고 있다. 주요 묘사대상은 봉우리와 황산인데, '黟峰'이 '翠色'으로 변하고 '素秋'가 '豁'하는데는 하늘('天'·'青冥')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唐 任宇의 〈新安郡北百餘里即黃山, 西北有峰高出, 頗類大華, 因目爲小華山. 前郡守才客題詠至多, 偶登斯樓, 因成一絕〉은 潼關으로 통하는 길에서 仙掌峰을 만나면서 황산루에 오르면 三峰을 확실히 볼 수 있겠지 하는 예전의 기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로 황산루에서의 주요 묘사대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기타장소에서 황산을 바라보며 지은 작품으로 모두 5수가 있다. 먼저 宋 柳月澗의 〈花山寺看黃山〉 제1수를 보면, 봄날의 화산사 정경과 그곳에서 바라본 구름 낀 황산의 풍경을 두 구씩 나누어 묘사하였다. 황산을 보고자 하나 구름이 깊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서 「溪閣雲深認不眞」이라고 표현하였다. 元 程仲淸의 〈遊松谷庵望黃山〉을 보면, 앞의 네 구는 송곡암에서 황산을 바라보며 느낀 정회, 뒤의 네 구는 송곡암 현지의 가을 분위기와 자신이 현재 처한 입장을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앞의 네 구는 앞의 시와 모든 정황이 유사하나 '認不眞'으로 끝맺지 않고, 나아가 그곳을 선계로 승화시켜 신선과 飛翔을 하고자 한 점이 다르다. 明 張達의 〈萬山西爽軒望黃山〉을 보면, 산수시와 유선시가 결합된 형태이다. 즉 앞의 네 구는 황산의 정경을 묘사하였고, 뒤의 네 구는 황산을 仙界로 간주하였다. 주요 묘사대상은 봉우리인데, 묘사 스케일이 '奇峰天外'·'楚吳千里'·'星月九霄'처럼 크다는 점이 특색이다.

明 湯賓尹의 〈度箬嶺望黃山〉을 보면, 앞의 네 구가 景이고 뒤의 네 구가 情으로 된 결구형태를 지닌 전형적인 산수시이다. 주요 묘사대상은 황산 안팎의 여러 가지 경물인데, 예술 기교가 대단히 뛰어나다. 특히 시각(靑嶂·彩霞)과 청각(鸞音·泉聲)의 조화가 뛰어나고, ‘雲’에서 ‘雨’로 ‘樹’에서 ‘花’로 이어지는 결구가 빈틈이 없다. 明 程琚의 〈祥符寺雲後望山〉을 보면, 이 시는 칠언율시로 눈 은 뒤 상부사를 나와 ‘雲深’하고 ‘林暝’한 산속을 거닐다 산꼭대기까지 쌓인 눈을 보고 더 이상 오를 수 없음을 슬피한 것이다. 주요 묘사대상은 눈 덮인 황산이며, 이 중 ‘鶴徑’의 등장은 人境에서 仙境으로의 승화를 의미한다.

넷째, 새벽에 황산을 바라보며 지은 작품으로 1수가 있다. 宋 鄭震의 〈曉看黃山〉을 보면, 주요 묘사대상은 봉우리로 앞의 네 구가 이것의 형상과 위치를 묘사하였다. 산봉우리를 ‘仙子’의 ‘靑鬢’으로, 그곳의 산과 나무를 ‘日際雲頭’와 ‘人間天上’에 위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황산이 인간세계가 아닌 신선세계로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林文月 著 《山水與古典》 臺北, 純文學出版社, 1976
 本社 編訂 《中國歷史紀年表》 臺北, 華世出版社, 1978
 袁珂 注 《山海經校註》 臺北, 里仁書局, 1982
 君實 編著 《中國山水田園詩詞選》 臺北, 純眞出版社, 1982
 明 徐弘祖 著 《徐霞客遊記》 臺北, 民主出版社, 1983
 清 王琦 編撰 《李白集校註》 臺北, 偉豐書局, 1984
 鄭在書 譯註 《山海經》 서울, 民音社, 1985
 王國瓔 著 《中國山水詩研究》 臺北, 聯經出版社, 1986
 伍茲甫 編 《山水與美學》 臺北, 丹青圖書出版社, 1987
 汪海潮 著 《話說黃山》 合肥, 黃山書社, 1988
 張秉成 主編 《山水詩歌鑑賞辭典》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1989
 余樹森·喬默 主編 《中國名勝詩文鑑賞辭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閔麟嗣 編 《黃山志定本》 合肥, 黃山書社出版, 1990
 丁成泉 著 《中國山水詩史》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0
 李時人 主編 《古今山水名勝詩詞辭典》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1
 許美瑜 責任編輯 《中國地圖冊》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4
 陶方平 著 《黃山旅遊指要》 合肥, 黃山書社, 1996

李時人 編著 《中華山水名勝旅行文學大觀》 西安, 三秦出版社, 1998

楊剛 編著 《中國名勝詩詞大辭典》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1

【中文提要】

黃山被世人稱爲“天下第一奇山”、“人間仙境”，以獨特的峰林地貌構成奇、偉、險、幻的奇觀，以怪石、奇松、溫泉、雲海“四絕”著稱于世。明代旅行家徐霞客於萬曆年間來黃山遊覽後感歎道：「薄海內外，無如徽之黃山。登黃山，天下無山，觀止矣！」後人據此話演繹成“五嶽歸來不看山，黃山歸來不看嶽”一句。

歷代遊黃山者和居住在黃山的僧人隱士等以黃山爲題材，創作了2萬多數詩歌。自宋代迄今，共出版有各類山誌及續集和校註本計十多種，這些不僅是了解黃山歷史的工具書，它門自身也成了黃山文化的重要組成部分。

本論文以《黃山志定本》爲底本，由那本書的〈賦詩志〉挑選有關‘望黃山’的詩10首，以這些詩爲對象而研究分析各詩人的形象化傾向，尤其是在第一章敘述唐李白的〈送溫處士歸黃山白鵝峰舊居〉，這就是因爲這首詩又著稱于世又有很大的價值。另外，在第二章以‘從黃山樓望黃山’的詩4首爲研究對象而敘述它們的形象化傾向，在第三章以‘從其他場所望黃山’的詩5首爲研究對象，在第五章以‘早晨時望黃山’的詩一首爲研究對象。

【주제어】

황산, 묘사대상, 형상화, 의상, 황산루, 선계, 선경, 산수시